

# ‘뜨거웠던 8월’을 묻다

## 주요 일간지…과거사 청산과 분단에 대한 엇갈린 기억들

식민지배와 분단, 전쟁, 독재,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다시 과거에 대한 물음. 지난달 중앙일간지 북 리뷰의 테마는 그런 질문과 답에 모아졌다.

《분단의 두 얼굴》, 《8·15의 기억》, 《세계의 과거사 청산》, 《제노사이드》, 《제국의 바다 식민의 바다》, 《약산 김원봉》 등은 각 언론 매체가 뜨거웠던 8월의 의제를 그로부터 구하고자 했던 책이었다.

7월 30일자 <경향신문>은 《세계의 과거사 청산》이 말하고자 하는 테마로부터 친일과 해방의 카테고리에 연원한 우리의 과거사 청산의 의미를 캐물었다.

신문은 “해당 국가의 현대사를 개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산과정에서 드러나는 그 나라의 문화까지 엿볼 수 있다”고 이 책을 평하면서, “내전을 겪은 스페인은 소위 ‘망각 협정’이라는 사면법을 통해 모든 것을 잊기로 했고, 프랑스는 처음에 10만 명이 넘는 부역자를 재판에 회부했으나 나중에 흐지부지된 것도 나라별 민족성과 연관돼 있다고 했다”고 내용을 소개했다. 또 책을 인용해 “독일의 경우 과거사청산작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후퇴하거나 관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고 엄격해졌다는 평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일제 식민지 극복, 좌우 이념의 대립, 민주와 반민주의 반목 등 질곡의 역사를 달려온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국민간 논쟁거리이며, 그런 점에서 이 책의 출판은 다소 뒤늦은 감마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 언론의 성향만큼이나 주요 신문들

은 같은 책을 두고 사뭇 다른 해석과 평가를 곁들이고 있다. 같은 날짜 <동아일보>는 “이 책은 과거사 청산을 신화화하려는 조류에 대한 저항”이라며 “프랑스, 독일 등의 과거사 청산이 실제로 많은 부작용을 낳았음”을 상기시켰다. 신문은 특히 “‘역사의 교훈’이니 ‘민족정기의 회복’이니 하는 명분 아래 숨어 있는 정치적 의미를 깨닫는 것”이라고 단언하며, “늦게 태어난 자의 행운”을 누리며 현재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는 도덕적 오만함에 대한 성찰이 아닐까”하고 독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같은 날짜 <한겨레>는 “연구자들은 각각 독일·프랑스·스페인·아르헨티나·칠레·남아공·러시아 등에서 일어난 과거사청산의 쟁점을 비판적으로 다뤘다”면서 “손쉽게 과거사청산의 모범 사례 또는 실패 사례를 추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평했다. 또 “과거에 대한 역사적·내면적 반성과 진지한 역사인식의 가능성은 ‘정치적 진공’이 아니라 ‘정치적 대립’이 존재하는 현실과의 대면 속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본문의 논리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제노사이드》와 《제국의 바다 식민의 바다》 역시 ‘8월의 의미’와 맞물린 신간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책들이다. 8월 12일자 <조선일보>는 이 책을 대하면서 “칭기스칸이 세계의 지축을 흔들었다면 왜구는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시아를 괴롭혔다”고 ‘일본’과 역사에 대한 함축적 설명을 곁들였다. <조선일보> 역시 “저자는 현재 일본 우익의 움직임을 ‘신원왜구’로 규정하고 그 뿌리를 찾아 쓰시마, 가고시마, 시모노세키, 남태평양 팔라우

에 이르기까지 현장을 구석구석 답사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가 몰랐던 바다의 중요성과 역사를 새롭게 보는 시각을 제공해 준다”고 평가했다.

스티븐 워커의 《카운트다운 히로시마》 역시 '8월'의 반열에 든 신간이다. 5일자 <문화일보>는 “원폭 개발과정을 다룬 미국의 과학서나 일본 측 시각에서 히로시마 피폭자들의 참상을 다룬 책들과 달리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던 원폭 실험과 실제 투하가 벌어진 3주간에 초점을 맞추고,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객관적인 진실을 재구성하려 한 것이 책의 특징”임을 강조했다.

7월 22일자 <한겨레>는 《오르가즘의 기능》에 대해 장문의 서평과 분석을 가했다. 신문은 “빨간색 표지에 새겨진 큼지막한 제목만 얼핏 보고 이 책을 성생활 지침서쯤으로 여기면 곤란하다”며 “도덕적 엄숙주의에 대해 ‘자연스러운 성과 오르가즘’의 해방투쟁을 벌여온 정신의학자 빌헬름 라이히(1897~1957)의 오르가즘 이론을 역설한 책이기에, 제목에 끌려 손을 뺐은 독자에게 이 책은 지루할 법하다”고 경계(?)했다.

<세계일보> 7월 30일자는 “전 세계에서 셰익스피어에 관한 책은 적어도 하루에 한 권 이상 출간되고 있다지만 그의 역량은 문학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앤서니 홀든의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그런 의미에서 셰익스피어와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한 세밀한 이해를 돕는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짜 <서울신문>은 《산수간에 집을 짓고》에도 각별한 눈길을 두었다. 신문은 “그렇듯한 집을 마련해 품위 있게 살고 싶은 게 요즘 사람들만의 꿈일까?”하고 반문하면서 “이 책은 ‘임원경제지’ 중에서 ‘집’에 관한 기록만을 모아 풀어쓴 것”이라고 요약했다. 또 “옛사람들의 집 짓기에 관한 지혜와 미학이 생생히 드러나 있다”며 “우리 땅의 산수와 환경에 따라 어떤 곳에 터전을 마련하고, 어떻게 집을 짓고 꾸미며, 어떤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친절히 답변하듯 이야기를 풀어나간다”고 소개하고 있다. [4]

<출판저널> 편집부

● 언론이 주목한 책

- 《원숭이와 초밥요리사》 (프랑스 드발 지음, 수희재)
- 《알래스카 바람 같은 이야기》 (호시노 미치오 지음, 청어람미디어)
- 《달과 팽이》 (권오길 지음, 지성사)
- 《아름다운 노년》 (지미 카터 지음, 생각의나무)
- 《투명경영》 (돈 탭스콧 지음, 김영사)
- 《성공한 CEO에서 위대한 인간으로》 (앤드루 카네기 지음, 21세기북스)
- 《불교 풍속 고금기》 (박부영 지음, 은행나무)
- 《한시기행》 (심경호 지음, 이가서)
- 《오르가즘의 기능》 (빌헬름 라이히 지음, 그린비)
- 《윌리엄 셰익스피어》 (앤서니 홀든 지음, 푸른숲)
- 《광대한 여행》 (로렌 아이슬리 지음, 강)
- 《세계의 과거사 청산》 (안병직 외 지음, 푸른역사)
- 《산수간에 집을 짓고》 (서유구 지음, 돌베개)
- 《고릴라, 로마역에 서다》 (이두식 지음, 정음)
- 《제노사이드》 (최호근 지음, 책세상)
- 《새로운 천사》 (이신조 지음, 현대문학)
- 《사막의 꽃》 (와리스 디리 외, 섬앤섬)
- 《ICON 스티브 잡스》 (제프리 영·윌리엄 사이먼 지음, 민음사)
- 《카운트다운 히로시마》 (스티븐 워커 지음, 황금가지)
- 《레오스트라우스》 (박성래 지음, 김영사)
- 《5백년 명문가의 자녀교육》 (최효찬 지음, 예담)
- 《권력과 언론》 (루돌프 아우슈슈타인 지음, 열대림)
- 《마징가Z 지하기지를 건설하라》 (마에다건설 판타지 영업부 지음, 스튜디오본프리)
- 《나는 폭력의 세기를 고발한다》 (박노자 지음, 인물과사상사)
- 《탐욕과 오만의 동물실험》 (레이 그릭 외 지음, 다른세상)
- 《지압장군을 찾아서》 (안정효 지음, 들녘)
- 《제국의 바다 식민의 바다》 (주강현 지음, 웅진생크빅)
- 《빅맨 보이스》 (토마스 크바스트프 지음, 일리)
- 《나는 다다다》 (만 레이 지음, 미메시스)
- 《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장 마생 지음, 교양인)
- 《해바라기》 (시몬 비젠탈 지음, 뜨인돌)
- 《고향 길》 (윤중호 지음, 문학과지성사)
- 《분단의 두 얼굴》 (김승철 외 지음, 역사비평사)
- 《약산 김원봉》 (이원규 지음, 실천문학사)
- 《8·15의 기억》 (문제안 외 지음, 한길사)
-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 (손정목 지음, 한울)
- 《고종 스타벅스에 가다》 (강준만 지음, 인물과사상사)
- 《추악한 중국인》 (보양 지음, 창해)
- 《아케이드 프로젝트》 (발터 벤야민 지음, 새물결)
- 《2020 미래한국》 (이주현 외 지음, 한길사)
- 《그 여자의 자서전》 (김인숙 지음, 창비)
- 《경제의 심리학》 (니혼 게이자이신문 지음, 밀리언하우스)
-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 (카림 라시드 지음, 미메시스)
- 《비행선, 매혹과 공포의 역사》 (기욤 드 시옹 지음, 마티)